

세상에서 가장 큰 격려

꽃 한 송이로 이어지는 모자(母子)의 정... 이종진 · 윤민혁

지난 10월 제 8회 서울국제빵·과자전의 부대행사로 열린 빵·과자 경진대회 전시장. 수상작들은 수상 리본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잡았지만 수상 대열에 끼지 못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짧게 스치는 시선에 만족해야 했다.

이종진(45) 씨는 아들의 작품 앞에 섰다.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살포시 작품 옆에 올려놓았다. 장미꽃을 묶은 리본에는 “수고했어요-엄마가”라는 글씨가 정갈하게 써어 있었다.

그랬을 것이다. 입상하지 못한 아쉬움보다 설핏 눈길 한 번으로 작품들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들의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을 것이다.

“몇달 동안 공공대대군요. 참가한다는 데 의의를 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 윤민혁(19)군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다. 고 2때 부모님의 권유로 건국대 사회교육원 제과제빵 과정 야간반에 들어간 것이 제과제빵 기술자로 들어선 계기가 됐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고민하다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 이 일에 맞을 것이라 판단했다.

“일이 재밌어요. 적성에도 맞고요. 부모님도 제 일을 적극 후원 해주시니 항상 고마울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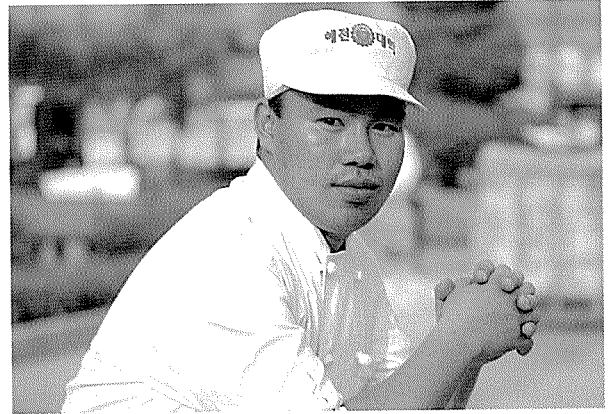
건대 사회교육원 이후 윤민혁 군은 올 1월부터 최두리 슈가아트 웨딩케익 연구실에서 10개월간 기술을 연마하고 나폴레옹과자점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는 남들보다 일찍 자기의 길을 개척할 만큼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리고 있다. 유능한 제과기술 교육자가 그가 그리는 꿈이다. 윤군은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부모님이 항상 든든한 후원자로 그의 곁에 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밝고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말이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혜전전문대 호텔제과제빵학과 지상준



살다보면 때로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길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지나간 세월들이 부정되기 때문이라. 지상준(25) 씨도 한때 이런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막연했던 호기심은 안양 예고에 입학해 연극을 공부하게 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뜻하지 않던 벽에 부딪히게 된다.

“막상 연기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이 세계가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걸 어렵פות이 느끼면서 상당한 회의가 생기더군요.”

그는 오랜 시간을 고민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가. 마침내 그는 신문 광고에서 보았던 제과기술학원을 찾아 가기로 결심한다. 자기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직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학원을 수료한 뒤 그는 본격적인 제과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과점에서 2년여 동안을 근무한 그는 군대 제대 후에도 다시 제과점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혜전전문대 호텔제과제빵학과 특별전형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평소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특별전형에 응시해 합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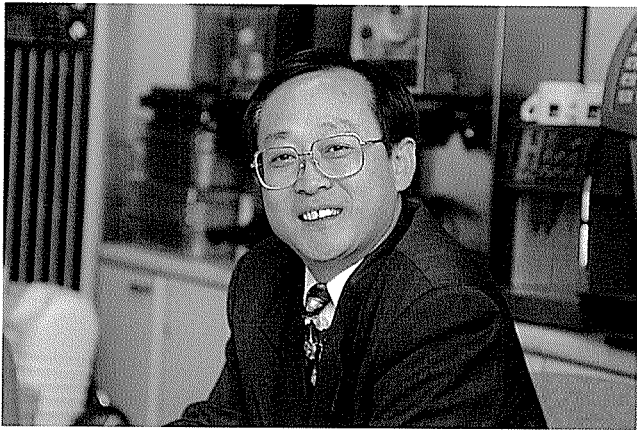
“입학 직후 학교에 적응하는데 남들에 비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교 교육과의 괴리가 더 큰 문제였지요.”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1학년 과대표를 맡으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는 아직까지 졸업 후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부를 계속하기 보다는 기술자로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때 자신의 진로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지상준 씨. 그 시절을 떠올리며 살포시 미소짓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한때의 혼란함을 슬기롭게 극복한 이의 자신감이 엿보인다.

열의와 성실함으로

(주)HRS 장재규



얼마전 있었던 서울국제빵과자전에서 장재규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곧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홍보 때문이었다.

“그간 덴마크에서 수입해 국내 시장에 소개해 오던 냉동생지 제품으로 곧 가맹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죠. 아마 내년에는 더욱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 음성인 고향인 장재규(44)씨는 현재 HRS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본래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건설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직된 그 사회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미련없이 뛰쳐나왔다.

그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경험은 79년 경주호텔에서 근무할 당시였다.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잡은 첫직장이기도 하거니와 안전관리 책임자와 인사계장, 심사분석실장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두루두루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늘 꿈꿔왔던 신선한 생동감이었다. 생감자처럼 아린 힘겨움도 없진 않았지만 열정의 화살이 그가 바라던 꿈의 한복판으로 곧장 날아가 꽂히는 듯한 젊은 시절의 향긋한 추억이다.

“당시 원가관리 부서인 심사분석실로 옮기면서 저는 일본에 원가관리 연수를 가게되었습니다. 한달간의 연수기간동안 일본인들의 철저함을 배울 수 있었죠. 첫주에는 주방일을 시작으로 인사하기, 서빙 등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아 올리려면은 기초가 단단해야 한다는 게 당시 그의 연수를 담당했던 일본인들의 주장이었고, 그는 이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다. 1년 뒤 그는 판촉기획실장을 거치면서 각종 프로젝트와 기획을 전담하기도 했다.

젊은 시절 밤낮없이 쫓아 그에게서 지금도 여전히 중년이란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젊음이 엿보인다. 바로 일에 대한 그의 열의와 성실함 때문이다. 지난 시절보다는 좀더 원숙한 젊음(?)이겠지만 여전히 그는 하루라는 강의 끝과 시작에서 물살을 헤치며 힘차게 뛰고 있다.

정년을 잊은 영원한 청년

제과협회 강북지회 사무국장 성락관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을 인터뷰해서 뭐 하려구요. 나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강북지회의 살림을 맡아 올해로 14년째 지역 회원과 회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는 성락관 사무국장. 하지만 “별로 하는 일이 없다”는 본인의 말과는 달리 회원들은 그가 강북에서 가장 활동량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93년 도봉구가 강북, 노원, 도봉의 3개구로 분구(分區)되어 구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성씨의 관할인 강북지회의 회원수만도 102개 업소 통상적인 협회 행정업무도 적지 않은 일인데다 회원들의 애경사를 챙기고 무시로 관공서를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아예 매주 월·수·금요일을 구청이나 관계 기관을 순례하는 날로 정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아직도 관공서 출입을 꺼려하는 회원들이 많아 간단한 서류 발급까지 부탁해오는 일이 많아요. 환갑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북지회의 터줏대감 성락관 씨를 찾아오는 회원들의 용건도 가지각색. 각종 서류 발급은 물론 자녀교육 문제, 법률상담, 심지어 말 못할 부부간의 갈등까지도 그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몇해전 시집간 여직원까지 종종 전화를 걸어와 가정일을 상의할 정도다. 그래도 그는 회원들을 위해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지난 76년 30여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라이프주택 상무이사를 거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그가 제과협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지난 83년의 일.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사업을 쉬던 참에 ‘소일거리 삼아’ 도봉구 지회에 발을 들여놓은 게 인연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10여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했던 그는 그저 건강을 위해 바쁘게 일하는 것 뿐이라며 조용한 미소를 짓는다.

